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5**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민수기 · 신명기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2 5월 일정표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6 기도제목표

7 매일묵상 Q.T.

71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5

May 20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17교구	2 전교인
3 전교인 제4차 성찬식 어린이주일	4 전교인	5 7교구	6 1교구	7 9교구	8 6교구	9 전교인
10 전교인 어버이주일	11 전교인	12 10교구	13 3교구	14 11교구	15 8교구	16 전교인 오직 예수 2015
17 전교인	18 전교인	19 18교구	20 2교구	21 15교구	22 5교구	23 전교인
24 전교인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25 전교인	26 16교구	27 4교구	28 12교구	29 14교구	30 전교인
31 전교인						

교회 주요 일정

5월 3일

제4차 성찬식

어린이주일

5월 10일

어버이주일

5월 16일

오직 예수 2015

5월 24일

성령강림주일(오순절)

5월, 개인 전도 계획

2015 June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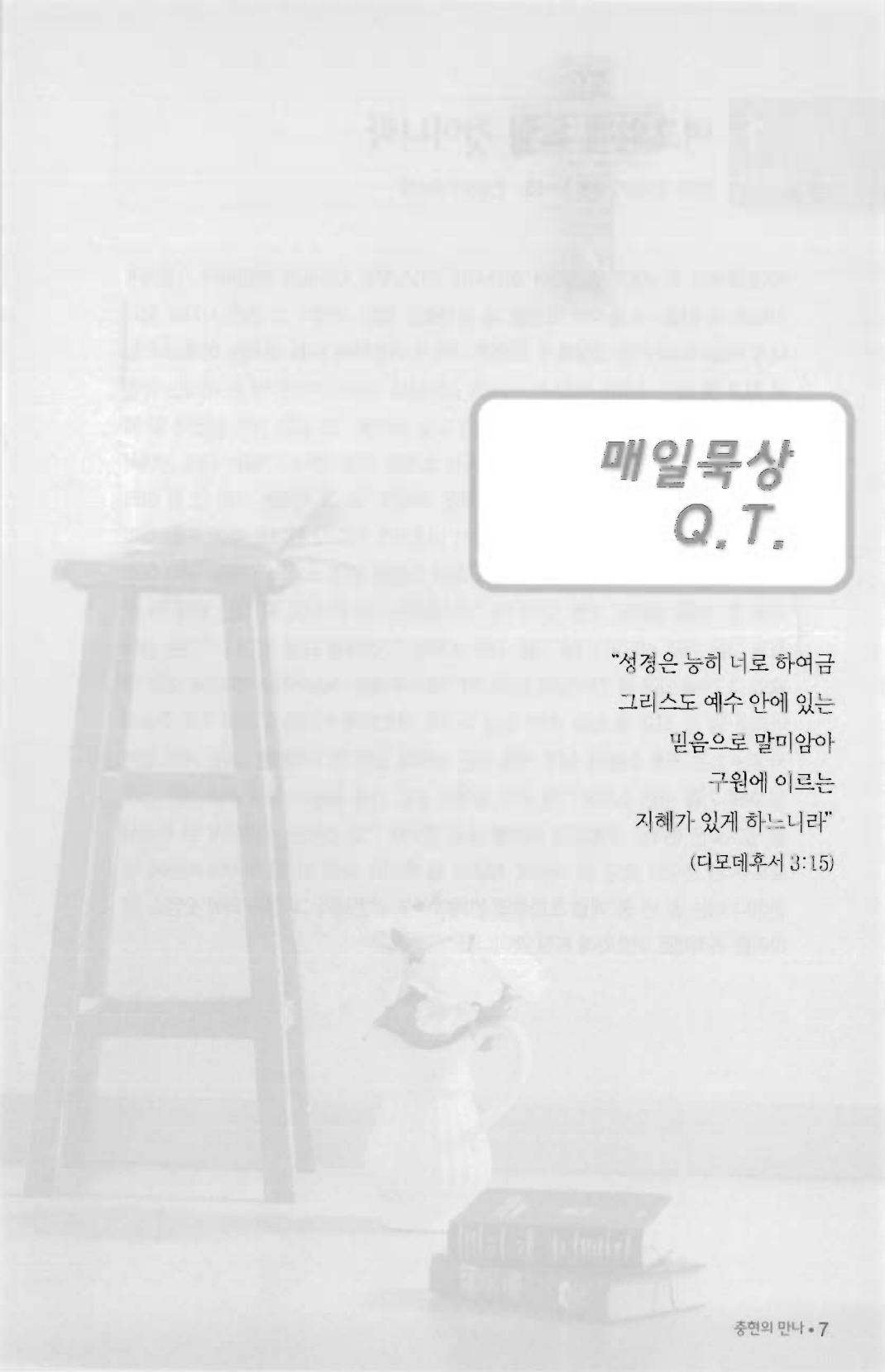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장로·안수집사·권사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May 1
금요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본문 민수기 28:1~15 찬송가 94장

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³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⁴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⁵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 바에 뿜아 낸 기름 사분의 일 한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⁶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⁷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한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⁸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⁹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¹⁰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¹¹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¹²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¹³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¹⁴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숫양 한 마리에 삼분의 일 힌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¹⁵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시내 산에서 명령하셨던 제사에 대한 지침을 광야 세대에 게 다시금 내려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의 세대인 이들은 당시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선포해 주셨습니다(1절).

하나님께서서는 정해 주신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바를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러 제사는 순서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빈도수대로(상번제-안식일-초하루) 기록되었습니다. 상번제(날마다 드리는 번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제사로서 매일 아침과 해질 때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 예배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6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출 20:11)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장차 영원한 안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9절). 그리고 초하루 제사를 통해서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한 달 동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11절).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이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지는 산 제물이 된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매 순간 원하고 계십니다(롬 12:1~2).

묵상 질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May 2
토요일

성회로 모일 것이요

본문 민수기 28:16~31 찬송가 327장

¹⁶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¹⁷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¹⁸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¹⁹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²⁰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드리고 ²¹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²²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²³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²⁴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²⁵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²⁶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²⁷수송아지 두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²⁸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²⁹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³⁰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³¹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본문 해설

절기 시 드리는 제사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절기 준수에 관한 분명한 다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제사는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제사였습니다(16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야 했는데(17절), 이스라엘은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무교병)을 먹었으며 절기의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로 모여 노동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18, 25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뒤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칠칠절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름 추수 감사절'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첫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칠칠절을 통하여 여호와가 추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히 13:15)를 드려야 합니다.

묵상 질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May 3
주일

향기로운 번제로

본문 민수기 29:1~11 찬송가 216장

¹“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²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³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 숫양에는 십분의 이요 ⁴“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⁵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⁶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⁷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⁸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⁹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¹⁰“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¹¹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첫째 날을 나팔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으며, 나팔을 불며 한 해를 시작함을 알리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2절). 또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켜야 했는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속죄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11절).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날마다 선언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려야 함을 말해 줍니다(롬 12:1).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살전 4:16).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죄악 된 세대 속에서 날마다 복음의 나팔을 불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엡 2:7).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새로운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독상 질문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거룩한 산 제물로 당신 자신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라

본문 민수기 29:12~40 찬송가 154장

¹²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¹³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열네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¹⁴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삼이요 숫양 두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이요 ¹⁵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¹⁶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¹⁷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¹⁸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¹⁹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²⁰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²¹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²²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²³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²⁴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²⁵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²⁶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²⁷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²⁸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²⁹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³⁰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³¹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³²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³³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³⁴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³⁵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³⁶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고슴뚝 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³⁷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³⁸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³⁹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⁴⁰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본문 해설

유월절, 칠칠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막을 지어 7일간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명령하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12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다른 모든 절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13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다른 절기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은 초막절의 의미와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더불어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어야 했던 것입니다(레 23:33~43).

초막절 제사 중 특이한 점은 수송아지 제물을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드렸으며, 마지막 날에는 한 마리만 드렸다는 것입니다(36절). 절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수송아지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율법의 점진적인 퇴보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제사(히 10:12)로 완성되며, 그 많은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될 장래에 대한 암시를 말해 줍니다(히 10: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며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듯 우리도 늘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거하며,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본문 민수기 30:1~16 찬송가 449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
 니라 ②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③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
 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④그의 아
 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⑤그러나 그의 아버지
 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⑥또 혹시 남
 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⑦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
 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⑧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
 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
 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⑨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
 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⑩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
 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⑪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⑫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
 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
 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⑬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
 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⑭그
 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
 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
 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⑮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⑯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
 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본문 해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약속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신실함에 바탕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신 23:22).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맹세한 이후에 이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고 서원한 것은 꼭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직 부모나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그들의 허락을 받지 못해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4~7절). 이는 하나님께서 가족과 공동체의 질서, 즉 여자의 지위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되었던 그 당시 부계 사회의 전통을 반영하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딸과 아내가 저야 할 중한 서원의 책임을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지게 함으로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1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상황을 잘 헤아려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되며 일단 행해진 서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약속된 서원이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원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서원을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자발적으로 서원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May 6
수요일

여호와와의 원수를 갚되

본문 민수기 31:1~12 찬송가 359장

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³⁾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⁴⁾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와의 원수를 갚되 ⁵⁾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⁶⁾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⁷⁾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⁸⁾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탁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⁹⁾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¹⁰⁾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워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¹¹⁾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¹²⁾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¹³⁾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¹⁴⁾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1) 히, 백성 2) 히, 천천인의

본문 해설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유혹하여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자신의 원수로 지칭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해 심판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훼방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국가가 아닌,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임했습니다(6절). 칼과 창을 가진 병사들과 함께 거룩한 성소의 기물을 들고 제사장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선 되는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전쟁에 임할 때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함께 나아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영적인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준비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May 7
목요일

깨끗하게 할지니라

본문 민수기 31:13~24 찬송가 264장

¹³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¹⁴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¹⁵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¹⁶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지손을 브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와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¹⁷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¹⁸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¹⁹너희는 이제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²⁰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²¹제사장 엘리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²²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²³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²⁴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책망했습니다(14절). 얼마 전 발람의 꾀임에 빠진 브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미디안 여인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15절). 이것은 미디안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들 중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17~18절).

또한 모세는 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거나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정결의 의식을 다 한 후, 진에 들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19~20절). 분명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부정한 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정한 예를 따라 거룩하게 한 후에 그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24절). 이는 시체로 인한 부정을 피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문화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딤후 5:22).

묵상 질문

전쟁에 임한 후 정결의식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교훈을 주니까?

적용 질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²⁵⁾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⁶⁾너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²⁷⁾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²⁸⁾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²⁹⁾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와 거제로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고 ⁽³⁰⁾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나 각종 짐승 오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³¹⁾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³²⁾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오 ⁽³³⁾소가 칠만 이천 마리오 ⁽³⁴⁾나귀가 육만 천 마리오 ⁽³⁵⁾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³⁶⁾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라 ⁽³⁷⁾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육백칠십오 ⁽³⁸⁾소가 삼만 육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칠십이 마리오 ⁽³⁹⁾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육십일 마리오 ⁽⁴⁰⁾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삼십이 명이니 ⁽⁴¹⁾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⁴²⁾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⁴³⁾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오백 마리오 ⁽⁴⁴⁾소가 삼만 육천 마리오 ⁽⁴⁵⁾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오 ⁽⁴⁶⁾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⁴⁷⁾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와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⁴⁸⁾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⁴⁹⁾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곤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기로 ⁽⁵⁰⁾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 고리, 인장 반지, 귀 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⁵¹⁾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⁵²⁾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니 ⁽⁵³⁾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⁵⁴⁾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을 삼았더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미디안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에 관한 분배에 대하여 지시하십니다(27절). 이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인 하나님이며 모든 전리품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진에 남아 있던 백성들이 공정하게 나누며 갖도록 하셨습니다(27~28절). 참전 군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의 50분의 1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바쳤습니다(29~30절).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남아 있는 자 모두 누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운명 공동체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군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49~50절). 이것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롬 8:28).

묵상 질문

군인들과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전리품을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바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May 9
토요일

온전히 따랐느니라

본문 민수기 32:1~15 찬송가 459장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족 때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²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³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⁴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족이 있나이다 ⁵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⁶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⁷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⁸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⁹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¹⁰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¹¹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¹²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¹³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¹⁴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¹⁵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본문 해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5절). 그들은 그곳이 많은 육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보다 우선 자기들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7절).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도 닮아 있었습니다(8절). 이에 모세는 이것이 자칫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14~15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으려 하는 이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경고와 같이 이들의 불신앙적인 선택은 훗날 그들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고충을 안겨 주었습니다(수 22:11~12).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히 12:2).

묵상 질문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지파에게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욕심을 따라 내린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본문 민수기 32:16~27 찬송가 327장

¹⁶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¹⁷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¹⁸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¹⁹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²⁰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²¹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²²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²³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²⁴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²⁵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²⁶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²⁷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본문 해설

모세에게 정고의 말을 들은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그들이 원하는 땅에 가축과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한 후,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16~17절). 그리고 둘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선발대로 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17~18절). 마지막으로 그들은 셋째는 가나안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19절).

이에 모세는 두 지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맹세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0~22절). 하지만 그들이 맹세한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3절). 언약의 내용을 모두 듣고 난 후, 두 지파는 언약의 내용대로 행할 것을 맹세했습니다(25~27절).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의 욕심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두 지파는 땅을 욕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모두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묵상 질문

요단 동편이 약속의 땅이 마님에도 그 땅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것이라

본문 민수기 32:28~42 찬송가 425장

²⁸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²⁹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³⁰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³¹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³²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³³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³⁴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³⁵아다롯소반과 아셀과 욱브하와 ³⁶벤니므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³⁷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³⁸느보와 바알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³⁹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⁴⁰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⁴¹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¹하봇야이라 불렀으며 ⁴²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본문 해설

르우벤과 갓 지파와 언약을 체결한 후, 모세는 그 언약의 내용을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무장하고 요단 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정복하면,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29절).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만약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을 어기면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30절). 이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라고 다시금 맹세한 뒤 이를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요단 강 동편 지역을 정복하였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요단 강 동편 지역 정복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과 야일과 노바에게 길르앗 인근 지역의 땅을 주었습니다(39~42절).

하나님께서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을 어기면 그들이 원하던 땅을 주지 않고, 이 두 지파를 강제로 가나안으로 데려가 거기서 땅을 분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묵상 질문

요단 강 동편의 땅을 요구한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한 약속 가운데 오늘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본문 민수기 33:1~14 찬송가 70장

¹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²모세가 여호와와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³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⁴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⁵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⁶숙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⁷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므딤 앞에 진을 치고 ⁸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⁹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¹⁰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¹¹홍해 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¹²신 광야를 떠나 ¹³돛가에 진을 치고 돛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¹⁴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본문 해설

요단 강 도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41지역들을 회상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 의 명령대로' (2절) 이 여정들을 기록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냈던 죄악들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40여 년간 생명과 사랑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첫째 달 열 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출발한 그들은(3절) 이 후 숙곳을 지나 에담, 므딕돌 앞, 마라, 엘림, 홍해 가, 신 광야, 돛가, 알루스,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5~14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고, 세상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하늘의 약속된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삶속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호르 산에 진을 쳤더라

본문 민수기 33:15~37 찬송가 545장

¹⁵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¹⁶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¹⁷기브롯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¹⁸하세롯을 떠나 릿마에 진을 치
 고 ¹⁹릿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²⁰림몬베레스를 떠나 립나에 진을 치고
²¹립나를 떠나 릿사에 진을 치고 ²²릿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²³그헬라다를
 떠나 세벨 산에 진을 치고 ²⁴세벨 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²⁵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²⁶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²⁷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²⁸데라를 떠나 밋가에 진을 치고 ²⁹밋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³⁰하스
 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³¹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³²브네야
 아간을 떠나 훌하깃갓에 진을 치고 ³³훌하깃갓을 떠나 옷바다에 진을 치고 ³⁴옷바
 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³⁵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³⁶에
 시온게벨을 떠나 신 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³⁷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 산에 진을 쳤더라

본문 해설

르비딴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15절), 거기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했으며,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엿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출 18~19장). 그 후 시내 광야를 떠나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롯하타아와에 도착한(16절) 그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하세롯을 지나 릿마(가데스)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18절).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은 그로 인해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으며, 출애굽 제40년 4월경에 두 번째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36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의 수많은 장소를 방황하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허망한 삶을 버리고 하루 속히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본문 민수기 33:38~49 찬송가 379장

⁽³⁸⁾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오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³⁹⁾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더라 ⁽⁴⁰⁾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⁴¹⁾그들이 호르 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⁴²⁾살모나를 떠나 부논에 진을 치고 ⁽⁴³⁾부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⁴⁴⁾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⁴⁵⁾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⁴⁶⁾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⁴⁷⁾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⁴⁸⁾아바림 산을 떠나 여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⁴⁹⁾요단 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뵤여시뭇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의 형이기도 한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해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에돔 땅 변경의 호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38~39절). 아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한 자였습니다(출 4:27~30).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호르 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광야의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41~49절). 출애굽의 출발지인 라암셋(5절)이 '구원의 시작'을 상징했다면, 싯딤은 '구원의 종결' 즉 '언약의 성취'를 암시했습니다(49절).

많은 가축 떼를 이끌고,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광야 노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과 목초지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본문 민수기 33:50~56 찬송가 365장

⁵⁰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⁵¹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
 에 들어가거든 ⁵²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⁵³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⁵⁴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
 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⁵⁵너
 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
 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⁵⁶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본문 해설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실들 중 가나안 원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원주민을 멸할 것과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파괴할 것(52절), 그리고 재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누라는 명령(53~54절)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55~56절).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심으로써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본문 민수기 34:1~15 찬송가 433장

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³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⁴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⁵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⁶서쪽 경계는 ⁷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⁸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그어라 ⁹호르 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¹⁰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¹¹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¹²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¹³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¹⁴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¹⁵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¹⁶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1) 대해로 경계를 삼을지니

본문 해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2절).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신 광야와 가데스바네아와 네게브 지역을 지나, 애굽 시내를 끼고 지중해에 이르렀습니다(3~5절).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으며(6절), 북쪽 경계는 호르 산에서 하맛과 하살에난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7~9절).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다메섹 동편 왕의 대로를 끼고 아인 동쪽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와서 요단 강을 따라 사해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10~12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차지한 요단 강 동쪽도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14~15절). 하지만 실제로 백성이 점령한 가나안 북쪽 경계는 헐몬 산 인근의 단 이남에 그쳤습니다(수 19:47~48).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수 16: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삶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선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탄의 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방인의 삶의 경계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장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직장 안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

본문 민수기 34:16~29 찬송가 595장

¹⁶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⁷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¹⁸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¹⁹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²⁰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요 ²¹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²²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²³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²⁴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²⁵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²⁶잇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앓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²⁷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²⁸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²⁹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의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16절). 약속의 땅에 대한 새로운 책임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18절). 모세와 아론과 출애굽 첫 세대의 족장들은 사라졌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새로운 족장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진행시키십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한 세대를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족장들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첫 세대의 족장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족장들의 이름에는 ‘엘’(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선정된 족장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신뢰가 있었을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도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결코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지도자 모세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지도자와는 달리 바뀌지 않고,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참 지도자로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묵상 질문

새로운 족장들의 이름에 ‘엘’(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본문 민수기 35:1~8 찬송가 435장

¹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²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³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돌 곳이 되게 할
것이라 ⁴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
라 ⁵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
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⁶너희가 레
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⁷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⁸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
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본문 해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받은 분깃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2절). 이에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에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읍을 마련하고, 집과 가축과 목초지를 형편에 따라 제공해야 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골고루 분포하여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따로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돌보게 하심으로 균등한 분배의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본문 민수기 35:9~21 찬송가 320장

⁽⁹⁾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⁰⁾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¹¹⁾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¹²⁾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¹³⁾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¹⁴⁾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¹⁵⁾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¹⁶⁾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¹⁷⁾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¹⁸⁾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¹⁹⁾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²⁰⁾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²¹⁾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심으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10~11절). 이처럼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살자의 가족이나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레위인에게 줄 성읍 중 요단 동편에 3곳, 그리고 서편에 3곳, 총 6곳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게 하심으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였습니다. 철, 돌, 나무나 연장 등의 흉기를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16~18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미움과 원한과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보복자의 손에 죽임당해도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19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즐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로서 결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나 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부지중에 형제나 자매에게 행한 잘못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²²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²³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²⁴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²⁵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²⁶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²⁷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²⁸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²⁹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³⁰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³¹고의로 살인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³²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³³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³⁴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1) 히, 속죄할

본문 해설

악의나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회중이 그 사람을 규례대로 판결한 뒤,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22~24절). 그리고 도피성에 머물게 된 살인자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해야 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규정을 어기고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보복자를 만나게 된 경우, 그가 보복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은 무죄했습니다(27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정죄와 형벌의 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형벌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 12:48).

묵상 질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가 고향에 갈 수 있는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적용 질문

당신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그곳으로 달려갑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

본문 민수기 36:1~13 찬송가 429장

¹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의 손자 마갈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²“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³“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⁴“이스라엘 자손의 회변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⁵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⁶“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⁷“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⁸“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⁹“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¹⁰“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¹¹“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¹²“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¹³“이는 여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본문 해설

므낏세 지파 길르앗 가족의 수령들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기업 귀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므낏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었기에 그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기업은 남편의 소유가 되므로 자연히 므낏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므낏세 족장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의 말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5절). 이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므낏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여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이 동일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심으로 각 지파의 기업을 영구히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8~9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업을 보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타리를 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되지 못하며, 결국 기업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이 만일 슬로브핫의 딸이라면 므낏세 지파 가운데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예, 결혼, 직업 선택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May 22
금요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본문 신명기 1:1~8 찬송가 200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4 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5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렘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겟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본문 해설

거듭 반복되는 계명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는, 임종을 앞둔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 강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행하여진 장소는 '요단 저쪽 습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였습니다(1절).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호렙 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 말했습니다(6절). 모세의 말과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참된 안식과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요, 복된 약속인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8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묵상 질문

출애굽 첫 세대들이 그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May 23
토요일

나는 홀로 너희의 집을 질 수 없도다

본문 신명기 1:9~18 찬송가 605장

⁽⁹⁾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집을 질 수 없도다 ⁽¹⁰⁾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¹¹⁾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¹²⁾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¹³⁾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¹⁴⁾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¹⁵⁾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¹⁶⁾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¹⁷⁾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전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¹⁸⁾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9, 12절). 수많은 백성들의 소송과 분쟁을 다 듣고 해결해 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의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해 축복하며, 각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11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13절). 각 지파마다 수령을 세워 그들이 각 지파에 속한 자들을 재판하고, 관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그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17절).

하나님께서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 과정에서도 차별이 없듯이, 복음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묵상 질문

재판할 때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교회 안에서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 등의 이유로 암묵적인 차별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본문 신명기 1:19~33 찬송가 379장

¹⁹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²⁰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²¹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²²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²³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함대 ²⁴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²⁵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²⁶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²⁷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²⁸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²⁹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³⁰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³¹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이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³²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화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³³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절).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원했습니다(22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하여서 그 땅을 정탐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23절). 하지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했습니다(24~33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과 보이는 현실을 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지만(33절),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서,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었고, 광야를 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³⁴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시 맹세하여 이르시되 ³⁵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³⁶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³⁷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³⁸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³⁹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⁴⁰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⁴¹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⁴²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⁴³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⁴⁴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처서 호르마까지 이른제라 ⁴⁵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⁴⁶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41절)라고 말하며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41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고,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드는 백성들이었습니다(34절). 그들은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26절),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43절). 하나님의 약속을 경솔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면서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히 4: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곡소리를(45절) 왜 듣지 않으셨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이 오늘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본문 신명기 2:1~15 찬송가 393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²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³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⁴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⁵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⁶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⁷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⁸우리가 세일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⁹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¹⁰(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¹¹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¹²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¹³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¹⁴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¹⁵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 지역과 모압 광야를 지날 때에 에서와 롯의 자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을 기업으로 주셨고(5절), 롯의 자손에게도 모압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9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일들을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에서의 자손과 롯 자손에게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방민족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선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의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멸망당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14절).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첫 세대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May **27**
수요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본문 신명기 2:16~25 찬송가 397장

¹⁶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¹⁷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⁸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¹⁹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²⁰(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었도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임이라 일컬었으며 ²¹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²²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²³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²⁴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²⁵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모압 족속에게도 아르를 기업으로 주시며(신 2:9) 암몬 족속에게도 르바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과 조상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을 구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민족에게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민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엡 1:3~14)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용 질문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²⁶내가 그대듯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²⁷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
 니하리라 ²⁸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²⁹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
 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
 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³⁰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
 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
 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³¹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
 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³²시혼이 그
 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³³우리 하
 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
 성을 쳤고 ³⁴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³⁵다만 그 가족과 성읍에서 탈취
 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³⁶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
 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
 나 ³⁷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 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헤스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헤스본 왕 시혼에게 부탁했습니다(26~27절). 모세는 큰 길로만 행할 것이고 양식이나 물을 마실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 말했지만(28절), 시혼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30절).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시혼 왕과 그의 땅을 온전히 모세에게 넘기셨습니다(31~36절). 이 일은 창세기 15:16과 관계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에 그들의 죄악이 멸망을 자처한 것입니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던 것처럼(출 4:21) 시혼은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 3:13)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히 3:14).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말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씀으로(롬 14:19)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

헤스본 왕 시혼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신명기 3:1~11 찬송가 545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²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³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⁴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⁵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⁶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⁷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⁸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⁹(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¹⁰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¹¹(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¹⁾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1) 히, 암마

본문 해설

바산 왕 옥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1절).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시혼 왕에게 행했던 것같이 바산 왕에게도 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 길에도 역경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평화의 말로 협상을 해도 헤스본의 시혼 왕 같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산 왕 옥같이 자기들의 강함을 믿고 스스로 치러 나오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철 침상의 크기를 통해 표현했습니다(11절). 하지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대상일지라도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인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현재,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현재, 당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합니까?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본문 신명기 3:12~22 찬송가 568장

¹²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¹³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¹⁴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야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¹⁵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¹⁶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니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 강까지며 ¹⁷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레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¹⁸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¹⁹너희에게 가족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족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²⁰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²¹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²²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셨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위해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도케 하시며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1절). 이처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22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창 1:26~28) 실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요 3:16~17).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워 주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용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싸워 주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²³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²⁴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²⁵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²⁶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²⁷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²⁸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²⁹그 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본문 해설

모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2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을(민 20:12)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죽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26~27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만 해도 죽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실망한 모세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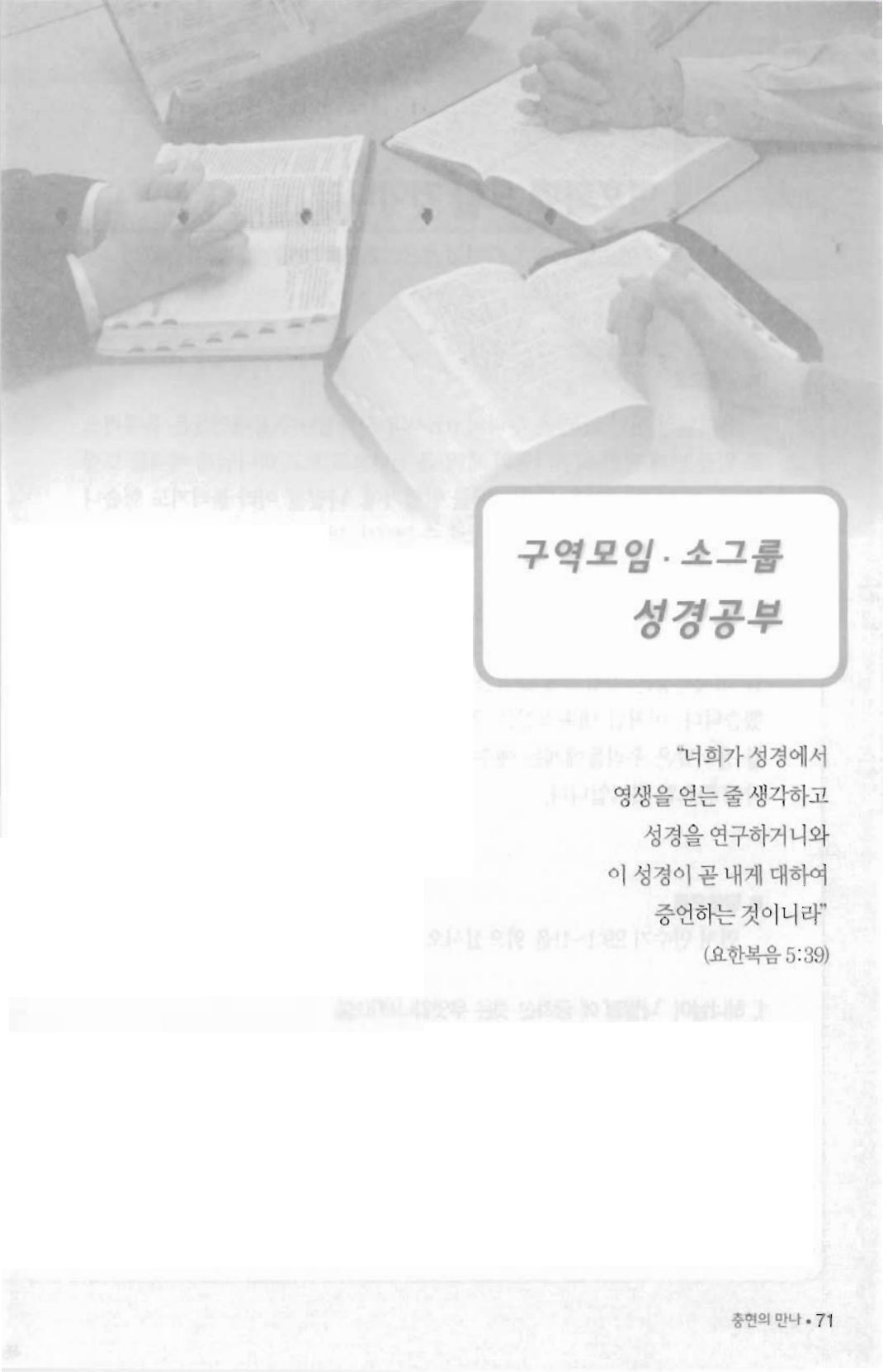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던 사도 바울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7~9)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스런 응답이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모두 선하며 복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언제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서 모세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참고 민 20:12)

적용 질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5월 3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유대인의 신년(新年)은 우리의 9월부터 시작됩니다(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쉬리월의 제1일을 신년으로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은 나팔을 불어 예배를 알렸기에 '나팔절'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년 제사의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숫양 1마리, 일 년 된 어린 숫양 7마리,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를 바쳤고, 정해진 분량의 전제와 소제를 함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 날로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단번에 속죄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약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29:1~11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이 '나팔절'에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1절)

[참고] 레위기 23:23~25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본문 민수기 29:1~11 찬송가 28장, 233장

2.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번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2절)

3.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7절)

[참고] 레위기 23:26~32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4.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번제'의 제물은 무엇입니까?(8절)

[민수기 29장에 나타난 제의와 제물의 종류]

제의	수소	숫양	어린 숫양	숫염소(속죄제)
나팔절(1~6절)	1	1	7	1
대속죄일(7~11절)	1	1	7	1
장막절 첫날(12~16절)	13	2	14	1
장막절 둘째 날(17~19절)	12	2	14	1
장막절 셋째 날(20~22절)	11	2	14	1
장막절 넷째 날(23~25절)	10	2	14	1
장막절 다섯째 날(26~28절)	9	2	14	1
장막절 여섯째 날(29~31절)	8	2	14	1
장막절 일곱째 날(32~34절)	7	2	14	1
장막절 여덟째 날(35~38절)	1	1	7	1

5.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정교한 절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행했던 규례는 무엇입니까?(레 16:3~5)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대속죄일 의식을 준행했습니다. 이 규례는 매우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의식을 성소와 바깥뜰에서도 행하였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취하여 광야로 내보내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담당시키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나팔절(신년예배)부터 이어지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은 대속죄일인 '욥 키푸르'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행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도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일어난 중동전쟁도 이스라엘 국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기간을 노려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 세상으로

1. 구약의 제사에는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예배를 준비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2.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 시대의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5월 10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갓, 르우벤,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일에 관심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줄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로 모세와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아내들, 가족들을 위해 성읍을 건설한 후 그들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남겨 놓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들 지파의 장정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제안을 듣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협조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만일 이들이 약속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길르앗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약속을 어킨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모세의 언약을 듣고 두 지파는 자신들이 제안한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32:16~27을 읽으십시오.

1.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누구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의견을 말했습니까?(16절)

2.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구체적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16~19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모세의 경고를 듣자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율타리를 친 양의 우리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은 뒤,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요단 동편에 남겨 놓고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이 두 지파의 남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 두 지파가 약속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22절)

하나님은 이들이 약속을 지키면 '길르앗'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10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서약(타협안)은 결국 누구와의 약속입니까?(23절)

5. 두 지파는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서약했습니까?(25절)

6. 두 지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23절)

7.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와 타협을 하게 된 계기는 자신들이 원하는 땅이 그들의 마음에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타협안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제안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비록 욕심이 질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심으로 자신을 대적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 세상으로

1.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도와 그분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 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참고 민 1:5~15).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전 세대 중에서 살아 남은 유일한 지도자로서 땅 분배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단 지파, 중앙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지파는 땅 분배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는 이 지파들이 이미 요단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민 32장).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했던 르우벤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는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이 새로운 일에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 까닭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본문 민수기 34:16~29 찬송가 347장, 182장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34:16~29을 읽으십시오.

1. 새로운 세대를 대표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소개된 자들은 누구입니까?(17절)

2.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 몇 개의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선출되었습니까?(19~28절)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빠졌는데 이들 두 지파는 요단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민 32장 참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을 기록할 때 그 지역이 남쪽부터 시작해 북쪽에서 끝맺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전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여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입니까?(19절)

4.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쪽에 남겨짐으로 약속의 땅에서는 어느 지파가 선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19절)

이스라엘 진영 구성을 보도한 민수기 2장, 족장들의 헌물을 기록한 7장, 실제로 광야 행군의 순서를 보여주는 10장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선봉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약속의 땅'은 민수기 전체를 총괄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29절)

민수기 1~10장은 약속의 땅 진입을 위한 하나님의 출정 준비 과정이고, 13~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돌이킬 수 없는 반역으로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 진입을 고사하고 광야에서 진멸되어야 한다는 심판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21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셔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4~36장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법령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신약백성이 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세대들을 지도할 인물로 이전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사명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5월 24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 산을 출발하여 '크고 무서운 광야'를 가로질러 아모리 족속의 산악 지방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은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정탐꾼을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 땅이 좋은 땅임을 확신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했습니다.

※ 당장 앞에 놓인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으로

먼저 신명기 1:19~33을 읽으십시오.

1. 어느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까?(20절)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민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2.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모세의 명령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21절)

3. 모세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안한 묘책은 무엇입니까?(22~24절)

5월 24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주저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명령에 정탐꾼을 파견하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은 겉으로는 신중하게 치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였습니다.

4.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의 정탐꾼을 어느 지역으로 파견했습니까?(23~24절)

5.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32절)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 세상으로

1. 직장이나 학교,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고백함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5월 3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그만해도 족하니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한 모세는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하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 가데스에 머물 때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민 20장 참고). 아울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모세를 왕으로 받들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여기까지만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 말씀으로

먼저 신명기 3:23~29을 읽으십시오.

1.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25절)

2.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26절)

3.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27절)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비움과 채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채움에 앞서 비움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일종의 채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5월 3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모세를 대신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는 누구입니까?(28절)

5.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28절)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모두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의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생각이 서로 상충될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되기를 지속적으로 간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2.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5년 5월

Copyright ©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정용만 성준우 강성은 이기영 엄현옥 이향란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음]